

울촌·해룡산단 입주기업 도로점용료 갈등 ‘마무리’

권익위 “경제자유구역청은 허가권 자체가 없어”

여수 울촌산단, 순천 해룡산단 입주기업들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과의 도로점용료 갈등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내 울촌·해룡산단입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제기한 도로점용료 관련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울촌·해룡산단에 있는 134개 기업 중 민원을 제기한 44개 기업은 산단도로가 준공되기 전인 2011년에 입주해 스스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사용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8월 도로점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해온 이들 44개 기업에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 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해당 기업들은 “도로점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갑자기 5년 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

장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청은 도로점용허가권 자체가 없으므로 점용료 부과는 잘못됐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5년 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 4천200여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한 44개 기업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의 도로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중재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가 오는 8월 30일부터 울촌·해룡산단도로와 진출입로를 관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선공약·국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선공약 및 국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도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한전 등 265억 투입 내달 착수...도시미관 개선 기대

광주시는 22일 “도심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기 위해 공중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동명동 주민센터, 전남대 정문, 송정초교 주변 등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19개 구역이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공중선 정비사업을 시작해 월드컵경기장과 U대회 선수촌 주변, 구시가지, 전통시장 주변 불량 공중선을 정비해왔다.

올해 공중선 정비대상은 한전주와 통신주 3천219본, 케이블 331km로 5월부터 사업에 들어가 오는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은 전주에서 건물, 주택으로 이어진 복잡한 통신인입선과 전력선 정리, 끊기거나 늘어진 통신선 등을 정비하는 내

용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265억원이며, 한전과 통신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거미줄처럼 난립해있던 공중케이블이 정비돼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선 정비 문의는 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전파관리소 또는 공중선민원콜센터(1588-2498),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한전과 통신사별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은 이번 사업과는 별개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 정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위한

광주시민 5·18 시 낭송회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내 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일로 진정한 5·18정신의 계승입니다. 이번 시낭송회를 통해 이러한 염원이 담아 질 수 있도록 광주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 주제 :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위한 '광주시민 5·18 시 낭송회'

■ 일시 : 2018년 4월 30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상무지구 롤링스톤즈(센트럴관광호텔)

■ 주최 :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 주관 : 문학메카낭송포럼

■ 문의 : 광주매일신문 기획실 (062-650-2007, 2078)

5·18 시 낭송회 낭송자 및 낭송작

고명순/ 부활의 노래 / 문병란 시

조옥녀/ 젊은 광장에서 / 송수권 시

김혜숙/ 공동산 / 이성부 시

이영미/ 다시 오월에 / 조태일 시

윤희정/ 그대들이 열어주고 우리가 열어가야 할 환한 세상 / 김용택 시

김미경/ 금남로에서 아카시아 꽃향기를 묻는 여인에게 답하다 / 조진태 시

차은자/ 오, 5월의 광주 / 황하택 시

이은재/ 누가 그날을 모른다 말하리 / 고정희 시

전경희/ 오월 아침 / 도종환 시

강민서/ 서석대의 일출 / 임원식 시

신은주/ 금남로 / 김인석 시

박미경/ 오월, 그대 이름을 부릅니다 / 오소후 시

김도희/ 내마음의 오월 / 곽재구 시

김창목/ 오월제 / 양성우 시

정예영/ 5.18 / 박덕은 시

고달령/ 오월 / 이은봉 시

정순애/ 빛고를 버들아 / 오재동 시

김정숙/ 그날 / 정민경 시

피날레 단체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심자가여! / 김준태 시

퍼포먼스/ 정경옥, 정우식, 나종복, 김동숙, 김지연, 문순례, 위현란

6·13 선거 브리핑 <국회의원·교육감·기초단체장·광역의원>

김명진 “원세훈 판결 확정, 국정원 거듭나야”

민주평화당 김명진 예비후보(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2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이 2013년 재판이 시작되지 5년 만에 확정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정원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은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임형진 “신성장에너지 사업 ‘에코지구’ 지정”

더불어민주당 임형진 광주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제48회 지구의날을 맞아 “신성장에너지 시범사업 ‘에코지구’ 지정과 공·폐가 지역 마을 공원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또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와 일회용품 과다 사용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소비문화 개선 뿐 아니라 부담금 등을 통해 일회용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이정선 “새 남북관계 맞는 통일교육 필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성공적 4·27 남북정상회담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은 종전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남북관계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통일 교육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문인, 청년창업 종합지원제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문인 광주 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청년들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창업 종합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청년창업자의 3분의 2가 5년 이내에 폐업하는 현재의 지원법과 제도를 전면 검토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실제 청년창업자가 다시 일어서 수 있도록 ‘재기희망 펀드’와 ‘재기희망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고석규 “장애인 특수교육 여건 개선”

고석규 전남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전남특수교육원 설립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전남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 1개 특수교육원 설립, 6개 권역별 전환교육 거점센터 설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역점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이은방 “북구 생태환경 친화도시 만들 것”

민주평화당 이은방 광주 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북구를 생태환경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북구는 도시 내 녹색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 폭염에 따른 열섬효과 완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고 기후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양혜령 “범구민 독서문화 확산 위해 최선을”

더불어민주당 양혜령 광주 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관내 작은도서관, 다양한 독서 공간 등을 돌아보고 주민들과 함께 독서의 중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양 예비후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선진화된 독서 장려정책이 우선”이라며 “동구청장이 되면 ‘문화예술특구 동구’를 위해 조선포서 등 산학협력 등을 강화, 범구민 독서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유화 “정의 사라진 정치판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유화 여수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정의와 신의가 사라진 현재의 정치행태를 보고 크게 실망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 호소문을 통해 “구태 정치인의 야합, 패거리, 쫄세우기 등의 정치가 이번 선거에 등장해 선량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여수시장 최종 경선에서 당원과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임택,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방지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임택 광주 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초등학교 및 유치원 아동의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등·하교 시간대 현장홍보, 보행안전수칙과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현장교육, 안전교육을 위한 어린이 맞춤형 캐릭터 개발과 활용 등 어린이들의 올바른 보행 습관 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승철 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광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철 예비후보(광산 제1선거구)가 22일 송정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정치학당과 소단위 주민자치, 여성과 장애우가 참여하는 따뜻한 공감행정을 비롯, 의료사회협동조합과 의료복지공동체 등의 사회복지 및 의료, 문화관광통합시스템 등 통한 문화관광교육을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